



2023 EURASIA EXPEDITION

ACTIVITY REPORT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로!  
**BUSAN IS REA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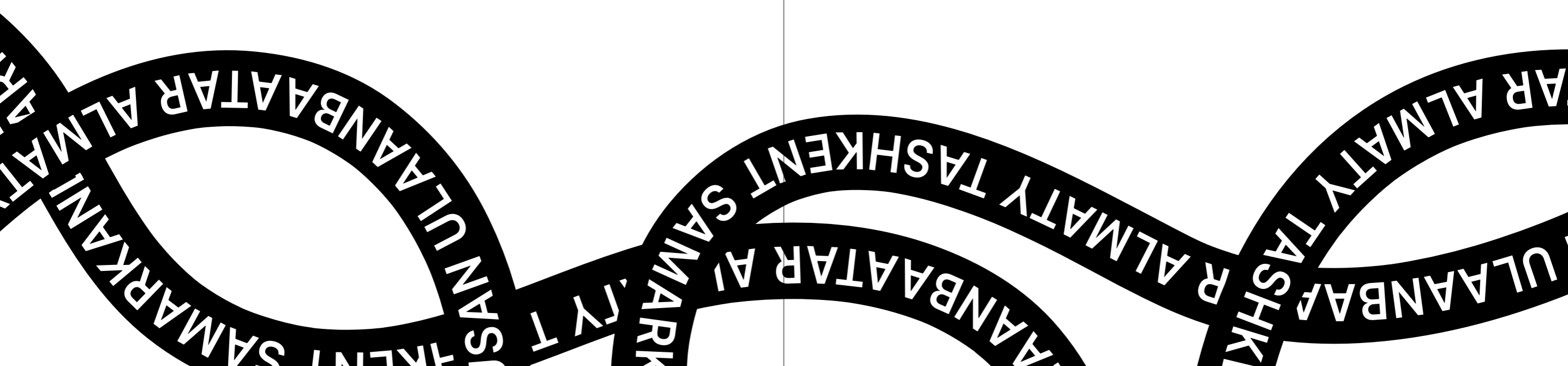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로!  
**BUSAN IS READY!**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 CONTENTS

### 01 인사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 06  
 황기식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 08

### 02 사업개요 및 결과

사업개요 ..... 13  
 추진목적 ..... 14  
 전년대비 개선된 점 ..... 17  
 추진실적 및 성과 ..... 18  
 주요 이동경로 ..... 20  
 일자별 방문도시 및 키워드 ..... 22  
 주요일정 ..... 24  
 참가자 ..... 26  
 사업추진 관련 네트워크 ..... 30  
 사전답사 및 준비 ..... 32

### 03 활동 기록

참가자 선발 및 해단식 활동기록 ..... 36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 38

### 04 활동 후기

공동단장 활동 후기 ..... 46  
 이치우 국제교류본부장 후기 ..... 50  
 대학생 대원 후기 ..... 52  
 운영진 후기 ..... 68

### 05 언론 보도

언론보도 현황 .....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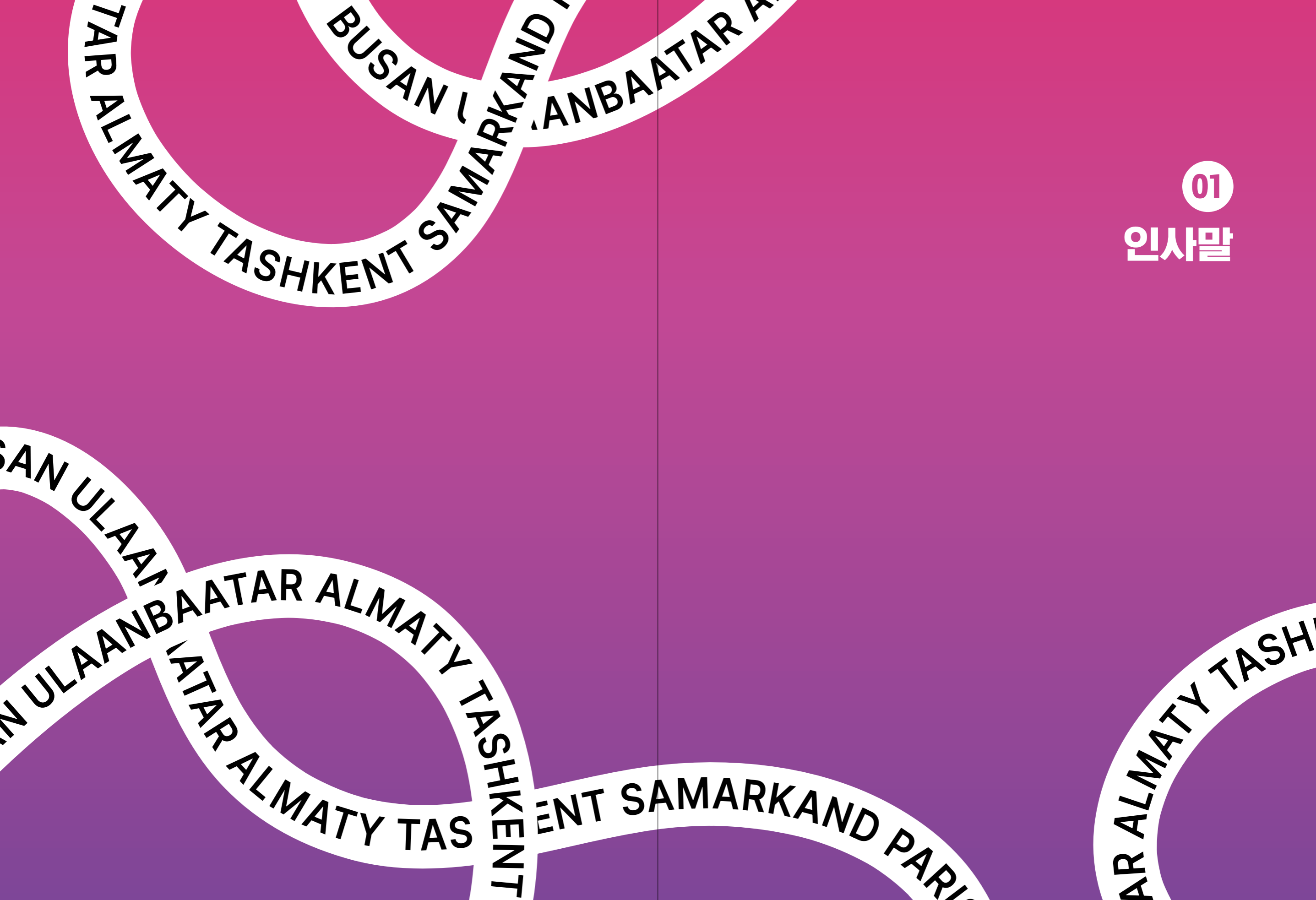
### 06 연도별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추진 현황

추진목적 및 경로 ..... 90  
 주요현황 ..... 91

### 07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현황

설립개요 ..... 94  
 주요연혁 및 시설 ..... 95  
 조 직 ..... 96

# 2023 EURASIA EXPEDITION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로!”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의 성공적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대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대장정에서는 김효정, 성창용 두 분 의원님을 공동 단장으로 부산의 대장정 대원들이 ‘2030 월드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몽골 울란바타르,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를 거쳐 프랑스의 파리까지, 가는 곳마다 부산의 비전과 열정을 알렸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의 우호협력 협정 체결은 물론, 500명 이상의 파리 시민들이 함께한 ‘부산데이 인 파리’까지 중앙아시아 교류 개척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 우호협력 도시 협정 체결,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 포럼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중앙아시아의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총 6개의 재외 한국공관과 5개의 주한 공관, 12개 현지 기관과 협업을 통한 행사 진행으로 부산시 도시 외교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점, 4개 국가 5개 도시에서 청년 교류 행사와 총 18개의 공공 외교 행사를 개최하여 부산을 알린 점 등은 올해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북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산이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세계를 향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대원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 부산광역시장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로!”라는 슬로건으로 11박 13일 대장정 동안 부산을 알리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대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부산을 출발해 4개국 5개 도시에 89명의 대원의 안전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17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공동단장 김효정 의원님과 성창용 의원님, 그리고 대장정 대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관문도시로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을 통해 우리는 해상 물류는 물론 비단길 육로까지 경제와 문화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염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방문 도시별로 다양하고 전략적인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알마티시와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영화의전당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공연으로 부산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경제인 진출을 위해 전문무역상사협의회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시와 신규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해 부산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해외도시를 확대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향후 의료, 관광 등 상호경제교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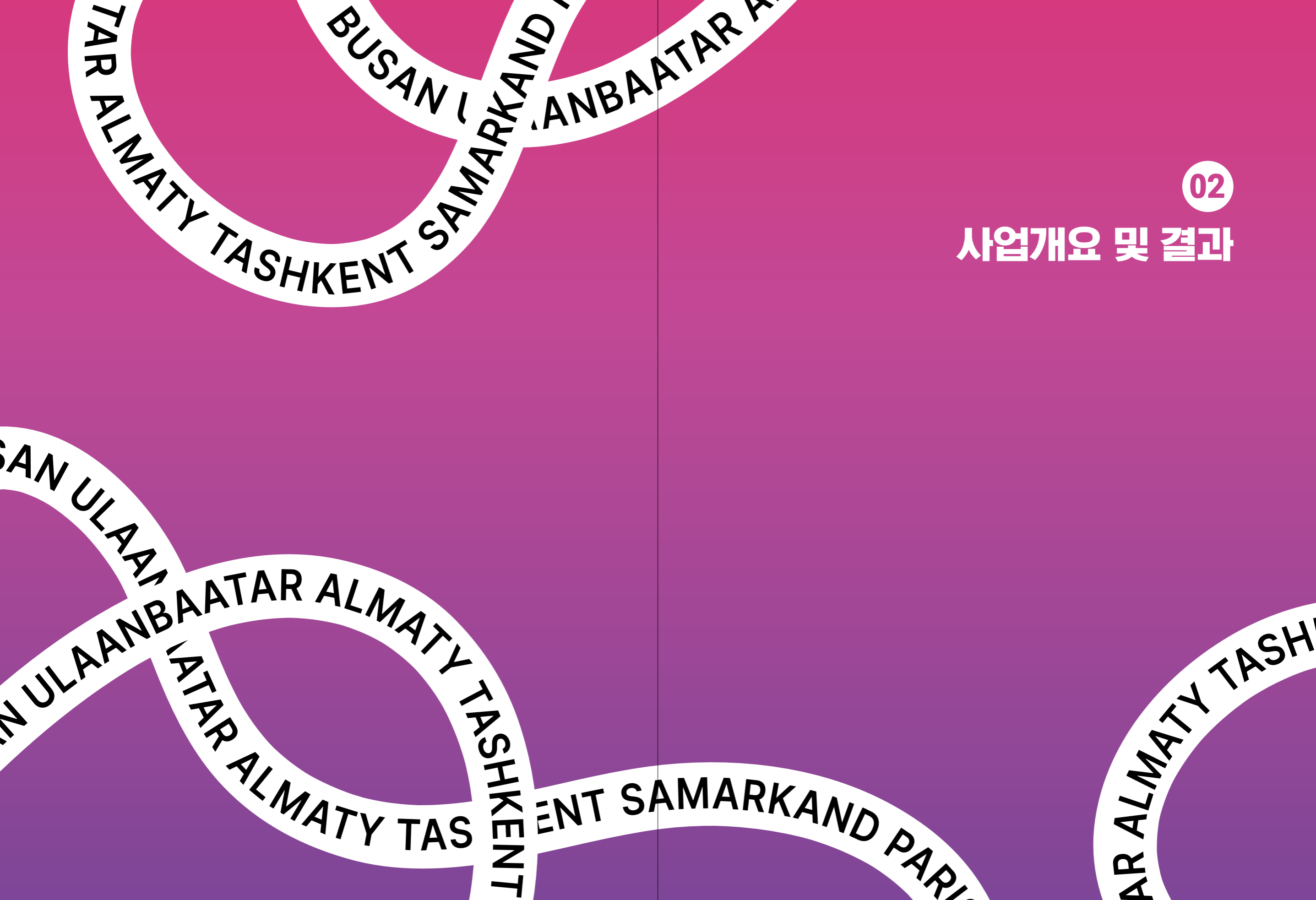
아울러 유럽의 문화수도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데이 in 파리’를 개최해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알리고, 현지 유력인사를 초청해 부산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드높이기 위한 대장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정 대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식**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 사업개요

**슬 로 건**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로!

**일 정** 8.22.(화)~9.3.(토), 11박 13일

**인 원** 89명 \*파견 인원은 도시별 분야별 상이함.  
문화예술 31, 경제인 18, 시의원 2, 청년 15, 대학 8, 관계자 및 언론 15 등

**파견도시** 4개국 5개 도시





**파견경로** 한국(부산) → 몽골(울란바타르) → 카자흐스탄(알마티)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 프랑스(파리)

**주요내용** 민간차원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및 부산 문화 매력 확산  
중앙아시아 부산 경제인 진출 발판 마련 및 거점도시별 청년교류  
해외 네트워크 신규 발굴 및 지속적 해외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등

# Results

사업개요 및 결과

## 추진 목적

- 
 ▶ 민간 차원의 전방위적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
- 
 ▶ 부산 경제인 파견을 통한 경제 판로 개척 발판 마련
- 
 ▶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홍보 및 브랜드 강화
- 
 ▶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도시외교 강화 및 외연 확대





**전년대비 개선된 점**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극대화 도모 및 현지 불업을 위한 유력인사 초청 리셉션 및 시민대상 야외 부산데이 개최(태권도시범 등 무대공연, K-컬처 관련 부스운영, 이벤트 등)

우호협력도시(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지속적인 도시외교 추진을 통한 교류성과 및 신규 우호협력도시 체결(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을 통한 외연 확대

각 방문 도시별 분야별(문화, 경제)로 나누어서 파견 및 행사 개최

부산시 주요 유관기관 및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부산시 소프트 파워 및 2030 세계박람회 유치홍보 극대화(부산 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소재 대학 등)

2030세계박람회 지지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 대장정 일부 구간 열차이동 편성(알마티-타슈켄트-사마르칸트)



### 추진실적 및 성과

#### 부산역 출정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응원 및 유라시아 대륙 출발도시 부산(Gateway to Eurasia) 대내외 홍보

#### 부산 경제영토 확장

부산전문무역상사협의회 경제사절단 알마티 파견 및 무역·통상 네트워크 구축,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포럼 개최

#### 우호협력도시 국제교류 내실화 및 외연 확대

우즈벡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알마티 우호도시 체결 1주년 기념공연 개최 등 5개 도시 17개 행사 개최

#### 글로벌 인재 양성

방문 도시별 지역 청년들과 부산홍보 교류 행사 개최, 부산외대 사마르칸트국립외대 글로벌센터 개소

####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 개최를 통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도시' 부산 브랜드 제고, 주파리 국내·외 주요 정관계 인사 참여 (500여명)

####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외 한국 외교공관(4개소), 주한 외국 외교공관(3개소), 방문지역 지자체(3개소), 현지 대학(3개소), 현지 기업 및 경제기관(8개소), 기타 유관기관 (10개소 이상) 등

#### 언론

주요 일간지 및 방송 보도 79건



주요 이동 경로

**1일차**  
**8.22(화)**  
 부산 → 울란바타르

**2일차**  
**8.23(수)**  
 울란바타르

**3일차**  
**8.24(목)**  
 울란바타르 → 알마티

**4일차**  
**8.25(금)**  
 알마티

**5일차**  
**8.26(토) - 8.27(일)**  
 알마티 → 타슈켄트

**6일차**  
**8.27(일)**  
 타슈켄트

**7일차**  
**8.28(월)**  
 타슈켄트 → 사마르칸트

**8일차**  
**8.29(화)**  
 사마르칸트

**9일차**  
**8.30(수)**  
 사마르칸트 → 파리  
 (이스탄불 경유)

**10일차**  
**8.31(목)**  
 파리

**11일차**  
**9.1(금)**  
 파리

**12일차**  
**9.2(토) - 9.3(일)**  
 파리 → 인천 → 부산



일자별 방문 도시 및 키워드



일시		방문 도시	주요 키워드
1일차	8.22(화)	부산, 구포, 김해, 울란바타르	출정식(16:00), 기차(→구포, ITX새마을호1012) 버스(→김해공항, 전세버스), 출발(21:00, BX411 → 8/23, 00:15 도착)
2일차	8.23(수)	울란바타르	이태준열사 탄생 140주년 기념 식수 및 참배 시스터빌리지(110번 유치원) 방문 교류 부산-울란바타르 친선의 밤 만찬
3일차	8.24(목)	울란바타르, 알마티	문화 탐방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음악회
4일차	8.25(금)	알마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카자흐 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 청년 교류(10:00) 부산영화상영회(아르만극장, 16:00-19:00) 고려인 동포 격려 음악회(18:00-19:00)
5일차	8.26(토)	알마티, 타슈켄트	알마티 고려인 뿌리 교육 센터 교류(10:30) 알마티 출발(18:25)
6일차	8.27(일)	타슈켄트	타슈켄트 도착(10:28)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방문 및 대사 간담회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타슈켄트1 세종학당 청년 교류회(16:30)
7일차	8.28(월)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출발(Afrosiyob764, 08:23) 사마르칸트 도착(10:43) 대원환영식(11:30)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청년 교류(14:00-18:00) (부산글로벌센터 현판식, 부산외대)
8일차	8.29(화)	사마르칸트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식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포럼 개막식 및 포럼 부산-사마르칸트 친선의 밤
9일차	8.30(수)	사마르칸트, 파리	사마르칸트 출발(08:55, TK85781) 이스탄불 도착(11:55/출발14:20, TK1833) 파리 도착(17:05)
10일차	8.31(목)	파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데이 in 파리 개최(11:00-18:00)
11일차	9.1(금)	파리	K-POP 댄스 및 태권도 버스킹(11:30, 17:00) 유네스코본부 시찰
12일차	9.2(토)	파리	1889파리만국박람회 투어(오르세 미술관 등) 파리 출발(21:00, KE902)
13일차	9.3(일)	인천, 부산	인천(15:45도착/16:40출발), 부산 도착(17:45, KE1419)

주요 일정

도시	일시	주요 내용	장소	비고	
대한민국 부산	1일차 8.22(화)	16:00-17:10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부산역 2층	
		17:16-17:28	부산역-구포역 이동(열차)	부산역→구포역	ITX새마을 1012호 1호차 (17:16-17:28)
		17:40-18:00	구포역-김해공항 이동(전세버스)	구포역→김해공항	경남76바 2372
		21:00-00:15	김해공항-칭기즈칸공항	칭기즈칸공항	BX411 / -1h
몽골 울란바타르	2일차 8.23(수)	10:00-11:00	이태준 열사 탄생 140주년 기념 추모행사	이태준영사 기념공원	
		14:00-16:00	시스템빌리지 방문 교류	성긴헤르한구 110번유치원	
		18:00-20:00	부산-울란바타르 친선의 밤	칭기스 후레캠프	
카자흐스탄 알마티	3일차 8.24(목)	11:30-13:30	칭기즈칸공항-알마티공항 이동	칭기즈칸공항 →알마티공항	MR411 / -2h
		15:00-16:00	호텔 체크인	알마티호텔	
		16:00-18:00	알마티 문화탐방	젠코프대상당 판필로프공원	
		19:00-20:3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음악회	카자흐 국립 필하모니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0:00-13:0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부산-알마티 청년 교류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학교	
4일차 8.25(금)	16:00-19:0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부산영화상영회(제목: 리바운드)	아르만극장		
	18:00-19:0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고려인 동포 격려 음악회	쿠르망가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0:30-12:30	알마티고려인뿌리센터 방문 교류	알마티고려인 뿌리교육센터		
5일차 8.26(토)	18:25	알마티역(Almaty 2)-타슈켄트역 이동	알마티역	001X TALGO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6일차 8.27(일)	10:28	타슈켄트역(Tashkent pass centr) 도착	타슈켄트 기차역	-1h
		13:30-16:00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방문 및 대사 간담회	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	
		16:30-18:0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타슈켄트1 세종학당 방문 교류회	타슈켄트1 세종학당	
		08:24-10:43	타슈켄트역-사마르칸트역 이동 *도착 후, 환영 세레모니(국립외대 학생)	타슈켄트역 →사마르칸트역	Afrosiyob 764
7일차 8.28(월)	14:00-17:00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사마르칸트국립외대 청년 교류 부산글로벌센터 현판식 개최(부산외대 주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도시	일시	주요 내용	장소	비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8일차 8.29(화)	09:30-10:00	부산-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 체결식	사마르칸트 청년센터	
		10:30-12:00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포럼 개막식 및 포럼	힐튼가든호텔	
		오 후	사마르칸트 유네스코 세계문화교차로 탐방	아프로시얌, 레기스탄 등	
		19:00-21:00	부산-사마르칸트 친선의 밤	미정	
		08:55-11:55	사마르칸트-이스탄불 이동(경유)	사마르칸트공항 →이스탄불공항	TK85781/-2h
9일차 8.30(수)	14:20-17:05	이스탄불-파리 도착	이스탄불공항 →샤를드골공항	TK1833/-1h	
	19:00	숙소 도착 및 석식	Mercure Versailles Parly 2		
프랑스 파리	10일차 8.31(목)	09:00-11:00	행사장 도착 <<Busan Day in Paris>> 개최 준비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잔디마당	
		11:00-18:0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Busan Day in Paris>> -개막리셉션 12:30-13:20 -개막식 13:30-14:00 -부스운영 : 11:00-18:00	※리셉션: 공두아르 꼬레안(한국관 내)	
		10:30-11:30	장소 도착 및 준비	트로카데로 광장	
		11:30-12:3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K-POP 및 태권도 버스킹 공연		
11일차 9.1(금)	14:00-16:00	유네스코본부 시찰			
	17:30-18:30	[2030부산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기원] K-POP 및 태권도 버스킹 공연	트로카데로 광장		
	전 일	파리만국박람회 스테디 투어	오르세미술관 프티팔레미술관 등 박람회 개최지		
12일차 9.2(토)	21:00	파리-인천 이동 대한항공(KE902)	알마티고려인 뿌리교육센터		
	13일차 9.3(일)	15:45	인천-김해 이동 대한항공(KE1419)	인천공항 →김해공항	경남
16:40-17:45		김해공항 도착 및 해산			

**전일정 참가자**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김효정	여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행정문화위원회)	공동단장
2	성창용	남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	공동단장
3	이치우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본부장	
4	조주영	여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5	한창길	남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6	전서형	여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7	천준현	남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8	서건진	남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9	김재희	남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10	코심조노프 이브로힘존	남	유라시아시민대장정 대원	
11	윤통환	남	부산시 외교통상과 신외교팀 주무관	
12	전미경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13	손희승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선임	
14	김권지	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주임	
15	김병관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주임	
16	김보경	여	부산일보 PD	촬영

**부시장단: 부산-사마르칸트-파리 구간**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이성권	남	부산시 경제부시장	
2	황기식	남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3	황영하	남	외교통상과 과장	
4	구영아	여	부산시 외교통상과 신외교팀장	
5	탁경륜	남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6	김자영	여	외교통상과 신외교팀 주무관	러시아어 통역

**부산-중앙아시아 구간 참석자**

**부산무역상사협회: 알마티**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이상훈	남	(주) 동광무역 대표	주울산카자흐스탄 명예영사
2	송해화	여	(주) 오션엔텍 대표	
3	이미경	여	(주) 대한상무	
4	정병창	남	(주) 디케이무역 대표	
5	전학철	남	(주) 코리나무역 대표	
6	하홍이	여	BHI인터내셔널 대표	

**영화의 전당: 알마티**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김대철	남	영화의 전당 영상 감독	

**부산외국어대학교 TPO: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권오경	남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총장	
2	김성실	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	
3	한아름	여	아시아태평양양도관광진흥기구	



### 부산-중앙아시아 구간 참석자

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이정필	남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2	이동훈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3	강영진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대금
4	권혜정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아쟁
5	김경수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피리(수석)
6	정수경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해금
7	김용우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피리
8	김인균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악기담당
9	김지현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가야금
10	박성희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소리(수석)
11	박영은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소리(부수석)
12	방병원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해금(부수석)
13	송강수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타악(수석)
14	엄애리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거문고
15	윤경선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가야금(수석)
16	윤해승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해금(수석)
17	이대하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거문고(수석)
18	장미진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타악
19	정선희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소리(부수석)
20	정세희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가야금
21	조은경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소금(부수석)
22	최정욱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타악
23	최희정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아쟁
24	한영길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대금
25	홍영혜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아쟁(수석)
26	김예진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신디사이저
27	조혜진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원	타악
28	박진수	남	부산문화회관 음향감독	
29	조성일	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30	백경옥	여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팀장	



### 부산-사마르칸트 부산경제진흥원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진양현	남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2	김재갑	남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단장	
3	송순애	여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전략사업팀 팀장	
4	장우진	남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전략사업팀 과장	
5	김지윤	여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전략사업팀 과장	
6	지연이	여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주무관	
7	허윤수	남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전경주	남	장금상선(주) 부장	
9	박순환	남	유니코로지스틱스(주) 상무	
10	김준현	남	(주)에이비엘 대표이사	
11	박철홍	남	용성씨엔에어(주) 대표이사	
12	최수혁	남	정인합동물관세사무소 관세사	

### 부산-파리 구간 참석자 동아대태권도시범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직책	비고
1	신정택	남	동아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주)세운철강 회장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2	이해우	남	동아대학교 총장	
3	이상호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4	이용국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5	전광혁	남	동아대 태권도시범단 감독	
6	이학명	남	동아대 태권도시범단 코치	
7	권창훈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4학년	
8	서장호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4학년	
9	이태영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3학년	
10	정홍인	여	동아대 태권도학과 3학년	
11	김효정	여	동아대 태권도학과 2학년	
12	이우성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2학년	
13	이정우	남	동아대 태권도학과 1학년	
14	안수근	남	동아대총동문회 사무처장	
15	전승윤	남	(주)세운철강 비서	

## 사업 추진 관련 네트워크

### 국내 기관

대한민국	
1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본부
2	부산시의회
3	부산문화회관
4	부산경제진흥원
5	영화의전당
6	부산디자인진흥원
7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8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9	주부산카자흐스탄총영사관
10	주부산몽골영사관
11	코레일부산경남본부
12	동아대학교
13	부산외국어대학교
14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15	부산전문무역상사협의회
16	BNK캐피탈
17	대선주조
18	부산일보



### 해외 기관

몽골	
1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2	울란바타르 시청
3	몽골 한인회
4	울란바타르 110번 유치원

카자흐스탄	
1	주알마티총영사관
2	알마티 시청
3	카자흐 국제세계국립언어대학교
4	알마티 뿌리교육센터
5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

우즈베키스탄	
1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	타슈켄트 1 세종학당
3	사마르칸트 시청
4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

프랑스	
1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2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3	주프랑스 한국 교육원
4	주프랑스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5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
6	프랑스 거점 세종학당
7	파리 한인회

### 사전 답사 및 준비

#### 1차 사전 업무협의 및 답사

일 정 2023.3.24.(금) ~ 4.6.(목) [12박 14일]

참가인원 6명  
부산시 신외교팀(3): 구영아 팀장, 윤통환/김자영 주무관  
부산글로벌도시재단(3): 이치우 사무차장, 전미경 팀장, 손희승 선임

방문도시 4개국 5개 도시  
중앙아(2): 카자흐스탄(알마티),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유럽(3): 튀르키예(이스탄불), 불가리아(소피아), 프랑스(파리)

#### 2차 사전 업무협의 및 답사

일 정 2023.6.27.(화) ~ 30.(금) [2박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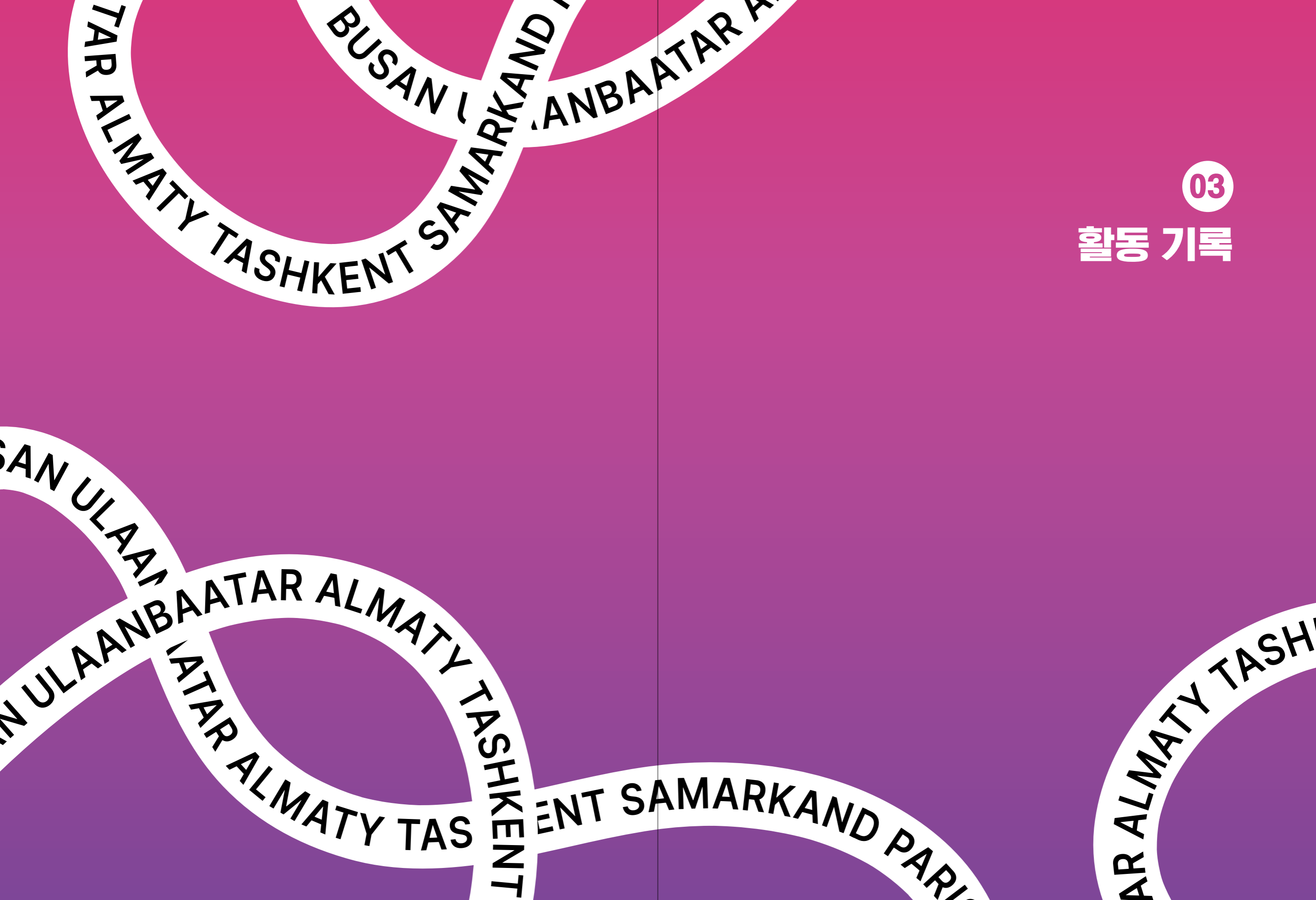
참가인원 3명  
부산시 신외교팀(1): 윤통환 주무관  
부산글로벌도시재단(2): 전미경 팀장, 손희승 선임

방문도시 몽골 울란바타르



사업 추진 보고





### 참가자 선발

**일 정** 2023.7.11.(화) ~ 14.(금)

**장 소**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교류실

**주요내용**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사업 이해도, 적극성, 책임감 등 평가)



### 오리엔테이션

**일 정** 2023.8.17.(목) 18:30

**참가인원** 20여명

**장 소**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라운지

**주요내용** 인사말씀, 일정 안내, 안전관리 및 주의사항, 단체복 배부 등



### 해단식

**일 정** 2023.10.10.(화) 18:30-20:30

**참가인원** 18명(부산시, 시의회, 재단, 대학생 참가자 등)

**장 소** 화국반점(부산 중구 백산길 3)

**주요내용** 대장정 영상관람, 표창장 수여, 소감발표, 교류만찬회, 기념촬영



 **출정식 - 한국 부산**

- 일 시 8.22.(화) 16:00-17:16
- 장 소 부산역(2층 대합실 및 1층 승강장)
- 참가인원 50여 명  
부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및 의원, 공동단장, 경제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경과보고, 인사말, 대원 선서, 출정 세레모니, 기념촬영, 열차환승 등
-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글로벌도시재단
- 협조기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몽골 올란바타르** 8.22(화)~8.24(목)



 **카자흐스탄 알마티** 8.24(목)~8.26(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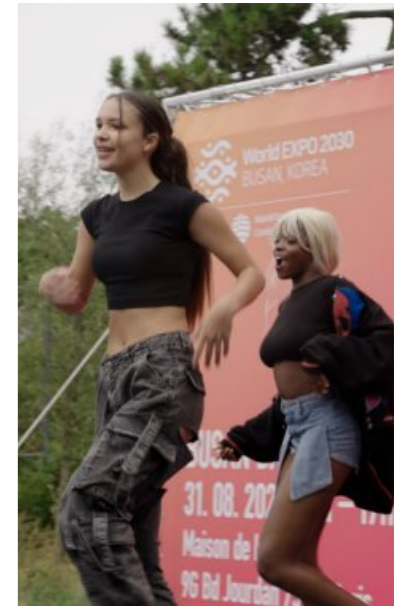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8.27(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8.27(일)~29(화)



 **프랑스 파리** 8.30(수)~9.2(토)







## 젊음과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공동단장으로서 지난 8.22.(화)~9.3.(일)까지 11박 13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효정** | 부산시의회 의원 (공동단장)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우리 부산을 출발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를 방문하고 우호협력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문도시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및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자부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응원속에서 출정식을 하고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우리 대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을 세계 속에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했던 것 같다. 대장정 기간 내내 바쁜 일정을 수행하느라 부산에 있는 가족들 생각도 잊고 있었다는 대원들의 말속에서 우리 임무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잘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기리는 기념 추모행사, 현지 청년과 교류하는 '친선의 밤' 행사를 진행했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우호협력도시 체결 1주년을 기념한 축하공연과 영화 '리바운드'를 상영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에서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과 '부산-사마르칸트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 하는 등 중앙아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부산의 도시외교 외연 확장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프랑스 파리에서의 '부산 데이 인(in) 파리' 행사를 통해 한국 음식, 부산 관광, 케이팝(K-POP)댄스 대회 등 부산에 대한 매력을 유감없이 알림으로써 2023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평생 기억될 것이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쉽지 않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대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을 드리고, 부산의 도시외교적 위상을 드높이는 시민대장정 행사의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끔 꼼꼼히 준비해주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임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울란바토르에서 파리까지 '부산 매력' 알리기 최선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공동단장으로 대학생, 경제인, 문화인 등과 함께 몽골과 중앙아시아, 유럽 각 도시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은 이미 문화강국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

시민대장정 11박 13일의 여정은 낯선 음식과 낯은 날씨, 시차에 적응해야 하고 피곤함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일정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짧고 행복했던 꿈 같은 여행이었다. 어느 때보다 부푼 기대감으로 떨림과 설렘을 안고 출발해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놀라운 감탄과 뜨거운 감격, 대한민국 국민이자 부산시민으로서 가졌던 자부심이 아직도 진한 여운으로 남아 있다.

첫 방문지 몽골의 울란바토르는 예전에 알았던 것과 달리 개발이 많이 진행돼 달라진 모습이었고, 유럽풍으로 잘 정비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는 중앙아시아의 변화를 실감케 했다. 두 도시 사람들은 우리를 크게 환대하며 친근감을 전했고,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알마티에서 만났던 우리와 너무 닮은 고려인 동포들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음악회에서 '아리랑'이라는 단 한 곡의 노래로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민족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불러줬던 '사할린 아리랑'은 옛 소련연방 당시 강제로 이주당한 한이 담겨있었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그들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성창용** | 부산시의회 의원 (공동단장)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까지 기차로 16시간 동안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색다른 경험은 중앙아시아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는 한국과 K문화에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에 상당히 놀랐다. 우리를 안내해준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사람의 70%가 한국말을 할 줄 알며,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며 "코리아 드림을 이룬 사람이 많다"고 알려줬다. 실제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 대학을 방문했을 때 현지 대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젊음'과 'K팝'이라는 공통점으로 금방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놀랍고 부러웠다. 솔직히 난 잘 몰랐다. K팝에 중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은지.

정말 문화란 시대를 반영하는 것일까? 이성권 부산시 부시장과 사마르칸트시장의 우호협력도시 협약식 역시 성대하게 치러졌다. 그들의 기대하지 못한 환대에 한 번 놀랐고, 장소의 웅장함에 또 놀랐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의 위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마르칸트에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통해 마지막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그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역시 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파리 방문을 그토록 염원하는지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쾌적하고 정갈했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중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인위적이면



서도 자연에 녹아 들어간 듯한 도시의 모습이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한 '부산 데이' 행사를 열고, 전 세계 유학생이 거주하는 파리 국제대학촌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알리며 K팝 댄스 경연대회를 열었다. 마지막으로 동아대 태권도시범단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유럽의 중심지인 파리로 대한민국과 K문화에 열광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는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뉴진스 노래에 환호하며, 블랙핑크 노래에 넋을 잃은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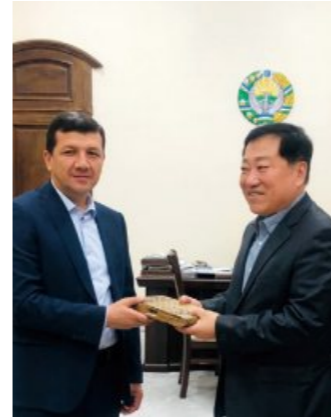
파리에펠탑 앞에서 펼친 K팝과 태권도 버스킹은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관광객이 함께한 작지만 의미가 큰 공연이었다. 세계인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인증,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임을 표현했고, 2030 월드엑스포가 꼭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그렇게 너무나도 짧게 흘러갔다. 젊은 대학생 친구와 얘기하며 그들의 고민과 희망을 들으면서 기성세대이자 직업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그 친구들이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에 선보이며 세계의 젊은이들과 스스로 없이 통하는 모습이 든든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애정과 지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적으며, 함께했던 김효정 공동단장님과 국제교류재단 직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 대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원들 모두 그때의 좋은 기억을 잊지 않고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치우 |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국제교류본부장



### 세계로 향하는 길, 부산에서!

2023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는 행사이다 보니 다소 익숙한 경험으로 진행되었던 행사인거 같다. 이번 행사 목적은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와 민간차원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및 지지세력 결집, 중앙아시아 등 부산-자매·우호 협력도시간 지속적인 도시외교 네트워크 강화·확대를 위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실시 되었다.

이번 여정은 부산시의회 김효정의원과 성장용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부산에서 출발하여 몽골을 거쳐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후 18시간 야간 기차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방문, 제2의 도시 사마르칸트와 우호협력도시체결과 청년교류후 항공편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데이 IN 파리 행사를 끝으로 11박13일 진행되었다.

이번 대장정은 작년과 같이 각 지역 대학교와 대장정단원 학생들과의 교류행사도 있었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부산-알마티 우호도시 체결 1주년을 기념으로 부산시립국악예술단이 합류하여 2차례의 공연으로 알마티시민과 고려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알마티 고려인 뿌리센터 방문을 통한 교류행사는 우리의 과거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의 의미가 깊었다. 그리고 부산경제인 사절단 방문으로 경제적 교류와 부산영화상영회를 통해 알마티와 한층 깊이 교류하는 행사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알마티에서 18시간의 야간기차를 타고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병풍처럼 보이는 텐산산맥의 풍경을 보면서 간 것이 좋았던 것 같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세종어학당학생과 교류후 중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사마르칸트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식을 맺었고 의미 있는 양도시간의 교류의 시간을 가져 형제기간과 같은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일정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 11월 말에 결정되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프랑스교육원 야외 마당에서 수많은 현지 한류 인플루언서와 프랑스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K-POP댄스 경연대회,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무술 묘기로 한층 흥을 돋구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파리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어야 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장정 전 일정 동안 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김효정, 성장용 부산시의원님, 우즈베키스탄과 파리일정에 함께 열정을 더해주신 이성권부시장님, 그리고 카자흐스탄 알마티 일정을 함께한 부산경제인사절단, 부산시립국악예술단, 파리일정에서의 동아대태권도시범단, 전일정을 함께한 대학생단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드린다.



###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다.”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갔다 온 지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금 바쁜 일상생활 속으로 녹아들 때쯤,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다. 아직도 여운이 남은 상태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개별 국가의 에피소드가 아닌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평가 및 후기를 작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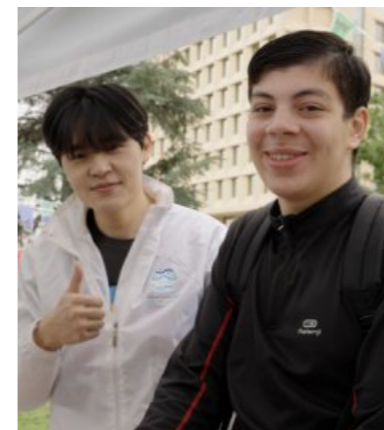
**김재희**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학과 2학년

### 단원소개 및 준비과정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원들은 역대 최소 인원인 7명으로 구성됐다. 인원이 적어 계획돼있는 행사 모두 함께 돕기로 했다. 약 3주간의 짧은 준비 기간에 맞춰 각자 열심히 준비했고 최종 확인을 받은 우리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대장정에 몸을 맡겼다.

참 고맙게도 7명의 소수 인원이었지만 7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춤꾼이자 똑똑한 막내 서형, 항상 침착하게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던 주영, 앞에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던 건진, 행사 진행과 우리를 책임졌던 팀장 준현, 시민 대장정 전체의 가이드였던 이브로힘, 다재다능의 정석이었던 창길까지 신기할 정도로 각자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나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여전히 미안한 마음뿐이다.



###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바라본 K-문화 인지도

나의 행사 역할은 레크리에이션이었다. 레크리에이션의 중점 사항은 간단한 이해도와, 높은 텐션이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에 이해하기 쉬운 단어 선택이 필요했고 나의 표정, 손짓, 몸짓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렇기에 출발 전, 집에서 대본을 빠짐없이 외우고 동선과 표정 등을 연습하고 모든 돌발 상황을 예측해 보며 계속해서 시뮬레이션했던 기억이 있다.

준비했던 게임은 K-POP 퀴즈와 인물 퀴즈, 투호와 제기차기, 판 뒤집기 등이었다. 모두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었다. 정말 놀랐던 점은 K-POP 퀴즈와 인물 퀴즈는 한 문제 당 정답을 맞히는데 1초가 넘지 않는다. 진행하다 보니 ‘이 정도면 한국인을 섭외한 것이 아닐까?’ 라고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K-문화의 위상이 내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뿌듯한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행사에 참여했다.

### 11박 13일의 강행군

11박 13일간 4개국을 돌아야 하기에 각 국가당 평균 3일 정도 머문다. 여기에 이동시간도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로 연착이 잦았기에 호텔을 새벽에 도착하는 일들이 많았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태양과 프랑스의 가느다란 빗줄기 속에서 빈틈없이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에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단원들은 모두 한 번씩 돌아가며 아팠고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내색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서로를 위로하였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가자로서 교류 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었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 ‘그럼에도 갈만한가?’

그렇다. 만약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꼭 한번은 참여해 봤으면 한다. 대외활동을 위한 목적이어도 좋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또한 못 가본 나라, 못 가볼 나라이기 때문이라도 좋다. 단체 생활과 힘든 여정 속에서 비치는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인생에 동기부여가 될만한 상황과 인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다.” 이것이 시민 대장정에 대한 나의 마지막 평가이다.



서건진

부산외대  
호텔관광학부 3학년



부산을 떠나 11박 13일

2023년 8월 22일. 우리는 부산역에서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대장정을 떠나게 되었다. 솔직히 대장정을 떠나는 전날까 지도 실감이 나질 않았다. 왜냐면 이런 거대한 행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장정을 위한 준비를 한 끝에 8월 22일을 맞이했고 현실감이 들지 않은 상태로 몽골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몽골에서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님의 기념관과 몽골의 대학생들과 게르에서 친선의 밤을 진행했다. 몽골에서의 행사는 첫 대장정을 떠난 장소였음에도 많은 환호를 해주었고 미숙한 진행임에도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었다. 당시에는 힘들고 바빴기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몽골에서의 성공이 있었기에 11박 13일이라는 여정이 좋게 끝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몽골에서 짧은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중앙아시아로 향했다. 처음 방문하는 중앙아시아였고 한류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특색과 문화가 뚜렷한 중앙아시아에서도 한류가 인기가 많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중앙아시아의 첫 행선지인 카자흐스탄에 발을 들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앞서 했던 걱정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고 있었고 침블락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이 한국어로 인사해주는 광경은 내게 새로운 충격을 선사해주었다.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이동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기억에 남는 장소로는 <알마티 고려인 뿌리센터>가 있다. <알마티 고려인 뿌리센터>는 고려인의 후손분들이 한국과 한글에 대해 배우는 장소로 우리는 그곳에 방문에 각가지 행사들을 진행했다. 그중 나는 시를 낭송하였고 예상치는 못했지만, 많은 칭찬과 환호를 받았다. 중앙아시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프랑스를 향했다.

프랑스에서는 <Busna Day in Paris>, EXPO 유치기원 버스킹 공연을 했다. 특히 <Busan Day in Paris>는 비가 오고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그중에서도 행사가 끝났음에도 노래가 나오자 춤을 추고 즐겁게 노는 파리 대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9월 3일 부산에 돌아오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내게 있어 이번 여정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K-POP 공연과 고려인 뿌리센터에서의 시 낭송을 통해 시도하기 전부터 핑계를 대며 포기하던 내게 뭐든지 해보야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모두가 이를 웃으며 극복하여 즐거운 대장정이 될 수 있었다.



## 부산 - 우즈베키스탄 우정을 위하여 !

2023년 8월 22일. 우리는 부산역에서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거쳐 프랑스 파리로 향하는 대장정을 떠나게 되었다. 솔직히 대장정을 떠나는 전날까지도 실감이 나질 않았다. 왜냐면 이런 거대한 행사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장정을 위한 준비를 한 끝에 8월 22일을 맞이했고 현실감이 들지 않은 상태로 몽골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코심조노브  
이브로힘존

부산외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 타슈켄트1 세종학당 교류행사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서 출국 전부터 오랜만에 고향에 간다는 것이 너무 설렘, 일정에 있던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 행사들이 더 재밌기를 바랐다. 우즈베키스탄 날씨는 더운 편인데 운이 좋게도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시원한 편이었다. 날씨는 좋았으나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에 방문하기 전날 감기에 걸렸다. “내일 세종학당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많은데 못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왔다. 정말 다행히도 세종학당에 방문하는 날에는 갑자기 감기 기운이 사라졌다. 막상 행사를 시작해 보니 세종학당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너무 좋아서 우즈베키스탄어로 통역할 필요가 없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 내 생애 첫 사마르칸트 방문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다른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마르칸트에 처음 방문했다. 사마르칸트에서는 대학생 교류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마르칸트 국립 외국어 대학교’에 방문했다. 사마르칸트 외대에서 나의 역할은 통역이었다. 통역하는 것이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긴장됐다.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무용인 부채춤 및 K-POP 댄스, 음악 등을 선보였다. 현지 학생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 압수된 드론을 찾아라

PD님이 촬영을 위해 한국에서부터 들고 온 드론은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는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겼다. 당시 드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안검색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때, 가능하면 사마르칸트 공항까지 가져가겠다고 말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마르칸트 공항까지 가져갈 수 없고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라고 얘기했다.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행 기차를 탈 때 돌려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나는 비자 발급 문제로 파리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까지 기차로 이동한 뒤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했다. 결국 우리는 타슈켄트 국제공항이 더 편리했기 때문에 타슈켄트 국제공항에서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다행히도 비행기 탑승 1시간 전에 우즈베키스탄 비대세관원과 통화 후 드론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드론을 돌려받기까지 들인 걱정과 노력은 꽤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원이라 좋았다!

8월 초,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대원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았다. 2022년 말부터 진행했던 부산 도시 브랜딩 시민참여단에 활동했던 나는 “Busan Is Good”이라는 부산의 슬로건과 로고가 선택되는 과정에 함께했기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홍보하는 이번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에 내가 단원이 된다면 부산을 세계 사람들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서 지원했고, 합격했다. 함께 대학생 단원이 된 7명의 대원들과 역할을 나눠 각각 행사 준비를 했다. 나는 PT팀과 댄스팀으로서 발표 대본 및 ppt를 만들었고, 서면 나타라자 학원에서 춤도 배웠다. 만반의 준비를 끝으로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의 11박 13일 여정이 시작되었다.



### 전 서 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

첫 나라 몽골에서 이태준 열사의 헌화, 울란바토르 방문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하고, 부산시에서 후원하는 110번 몽골 유치원에 도착했다. 대학생 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레크리에이션을 원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뿌듯했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부채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유치원생들과 대원들이 서로 웃으며 바디랭기지로 소통하는 모습에 지구촌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 부산과 울란바타르 친선의 밤을 게르에서 진행했고 몽골의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드라마, 영화, 노래 등 얼마나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나라 카자흐스탄의 세계언어대학교에서 카자흐 학생이 준비해준 전통 춤과 노래를 보았는데 몽골과는 다른 현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프로그램은 알마티 고려인 뿌리 교육 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이번 유라시아 대장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였다. 알마티에 거주하시는 고려인들이 한국 민족 교육으로 자신을 뿌리를 찾기 위해 이 센터에 다니시는데, 대원들이 준비한 장기자랑과 발표를 그분들을 위해 보여드렸다. 고려인분들께서는 ‘고향의 봄’과 ‘홀로 아리랑’ 우크렐레 연주와 합창을 보여주셨는데, 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는 등의 한국에 대한 사랑이 우크렐레의 멜로디와 목소리에 묻어나와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후 대원이 준비한 헌시를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인쇄해 모두에게 나눠드렸는데, 배우신 한글로 읽으시겠다고 작은 글자 하나하나 짚어 내려가는 고려인분의 손가락을 보고 눈물이 났다. 행사가 끝나고, 유라시아 대장정 단원들 중 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다는 알았고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차를 타고 세 번째 나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도착했다. 대사관에 방문해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우즈베크 세중학당에서 대학생 교류를 진행했다. 몽골은 조금 옛날 한국 문화를 알았는데, 우즈베크는 최신 문화를 알고 있어서 그 두 나라의 차이점이 신기했다. 물론 두 나라 모두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국립외국어대학교에서 교류 행사도 진행하고 사마르칸트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는 중요 행사에도 참석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다.

마지막 나라 프랑스에서는 부산데이 in 파리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 홍보관, 댕기 머리, 캘리그라피, 투호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고, 나는 부산 홍보관 내 대선주주 디스플레이를 맡았다. 대선의 돼지국밥 라면이 인기가 매우 많았고, 의외로 소주를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열심히 부산 홍보에 임했다. 비록 비가 내리는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한국을 진심으로 즐겨주셔서 감사했다. 다음 날에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버스킹도 진행했는데, 인기 관광지인 에펠탑 앞에서 태권도와 k-pop을 선보일 수 있어 뿌듯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부산에 도착해서 단장님의 마무리 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소지품 챙기라고 항상 신경 써준 레크레이션의 아버지 재희 오빠, 대원들 사진 찍어준 사회자이자 대표 준현 오빠, 춤도 잘추고 건강하게 복귀해준 창길 오빠, 미술작품 설명도 잘해주고 춤도 잘 추는 건진봇, 언어 박사 천재 사업가 이브로힘 그리고 여권 찾아준 만능 해결사이자 댄서 주영 언니까지 준비 기간에서부터 첫 일정과 마지막까지 함께해준 대학생 대원들 모두 수고했고 재밌었다.

또한 항상 일정마다 신경 써주시고 격려해주신 주임님들, 선임님, 팀장님, PD님, 주무관님 그리고 유라시아 대장정 무사히 이끌어주신 단장님들께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대원으로서 부산을 직접 해외에 알릴 수 있어 영광이었고, 여정을 통해 많이 배웠다. 매일 열정을 담아 활동했던 13일 하루,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나의 일상에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원이라 좋았다!





## 유라시아 대장정을 통해 부산을 통상(通商)하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하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달이었다.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장기자랑 준비를 위해 어색한 분위기에서 춤부터 쳤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처음 만나자마자 누가 춤을 춰요...” 라며 식막했던 첫 날, 갑작스러운 대원들의 댄스탈퇴 선언.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출발하기 전까지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해내야지!” 남은 4명이서 댄스를 마스터했다. 땀 흘리면서 나름 자주 본 사이라 그런지 댄스 팀은 출발하기 전에 친해질 수 있었다. 나머지가 문제였다. 11박 13일 동안 함께 지내야 될 사인데,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얼굴을 안보니 몽골로 가는 공항에서 친해진 대원도 있었다. PT팀도 각자 맡은 파트의 대본과 PT를 공유했지만 제대로 된 합을 맞춰보지는 못하고 출발했다. 또 대원 소개영상 제작의 경우 7명 다 같이 있는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라 개인영상만 있었다는 게 아쉬웠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 조주영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4학년



그렇게 도착한 몽골 유치원. 몽골 전통 옷을 입고 우리를 맞이해주는 유치원생들이 너무 귀여웠다.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많이 마주쳤지만 딱히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만들기 체험할 때 나를 둘러싸던 친구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나의 손을 꼭 잡고 같이 하자던 친구. 말은 안 통하지만 마음으로 통했던 순간 중 하나이지 싶다.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하고 몽골 대학생 친구들과의 교류행사에 참여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하지 고민하던 찰나, 먼저 말을 건네 주었다.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다. 억양이며 맥락 파악까지 그냥 한국인이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인 나를 좋아해 주던 몽골의 대학생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다.

“나 생각보다 몽골에서 인기 많을지도?”

몽골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파리에서 현지 대학생들을 만났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맞이해주고 좋아해주던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한없이 낮은 외국인이었을 텐데, 거부 없이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반겨준 모든 현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면 좋았을 거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즉석에서 대본을 만들어 MC를 보고, 장기자랑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원들 모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나를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다

“그들이 2030 부산엑스포에 관심을 가질까?”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부산과 2030 엑스포 유치에 대한 홍보에 도전하고자 지원하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맡은 일은 대표학생과 더불어 각국 교류회에서의 부산엑스포 PT와 교류행사 진행을 하는 사회자 역할이었다.

PT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는 청자에게 부산엑스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과 더불어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수였다. 그래서 생각한 정답은 한류문화를 활용하여 부산을 먼저 소개한 후 엑스포가 유치 된다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방법이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PT시간 동안에 행사장의 타국 학생들의 눈은 초롱초롱했고 준비한 PT관련 퀴즈 또한 열정적으로 풀어주었다. PT기획에 있어 청자를 먼저 고려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관련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천준현

동서대학교  
관광경영컨벤션학과 3학년

## “어려움을 통해 발견한 능력”

8월 23일 저녁에 열린 ‘부산-울란바타르 친선의 밤’ 행사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가 발생했다. 오전에 진행했던 110번 유치원 행사의 진행을 무사히 마친 나는 편안하게 친선의 밤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팀장님을 비롯하여 다들 분주해지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이유는 현지 사회자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였다. 급하게 현지 참석자분들 직함만 인지한채로 진행자로 투입하게 되었다. 평소 생각했던 좋은 사회자란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아닌 무대에 올라올 사람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하였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회자 자리에 섰다. 인사를 한 후 대장정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 놀라울 만큼 긴장이 되지 않았고 함께 즐기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현지 통역선생님과 행사 쉬는 시간에 멘트들을 조율하며 정리하였고 큰 어려움 없이 행사 진행을 마칠 수 있었다. 경험을 해보니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말해야겠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등의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이 덕분에 다음 일정이었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있었던 교류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로!”

비행일정으로 4시간도 취침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대원들 모두 부산과 부산엑스포를 위한다는 하나된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였기에 대장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족한 준비와 실력이었지만 현지 학생들과 참석자분들의 박수와 응원으로 열심히 활동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힘든 상황들을 극복한 후 한국에 돌아오니 대장정을 떠나기 전 보다 발전한 나를 보며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감사를 표한다. 우리가 했던 작은 노력들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되게 된다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뿌듯함을 가질 것 같다.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로!”





##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유라시아 대장정

### 꿈과 희망이 넘치는 몽골 101번 유치원

2023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의 첫 방문 국가였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101번 유치원은 미래의 몽골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왔던 깔끔한 시설과 한국식 놀이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이후 들은 설명으로는 건물은 울란바토르 시에서 지었고, 밖에 있는 놀이터를 한국에서 지어줬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몽골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대원들은 사전에 몽골의 아이들을 위해 ‘키 크기 체조’, ‘아기 상어 부채 만들기’, ‘판 뒤집기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등을 준비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였지만 시민대장정 프로젝트에서의 첫 행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갈지 걱정이 많았다. 유치원 원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단장님 인사말, 유치원 선생님들의 몽골 전통춤 공연, 대원 소개를 한 뒤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했다. 아이들이 너무 얌전해서 우리가 준비한 행사가 잘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체조 영상을 틀어주니 여느 또래 아이들과 같이 해맑게 따라 추는 것을 보고 역시 아이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몽골 대학생들과의 첫 교류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 자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도 밝게 지내는 모습이 대견하고 보기 좋았다. 자신감이 붙은 우리 대원들은 조를 이루어서 아기 상어 부채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친해졌고, 사전에 준비했던 판 뒤집기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알려주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만 보아도 괜히 행복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2시간가량 예정되어 있던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유치원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우리 대원들은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손수 만든 체리 모양의 벤틀지를 선물받았는데 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남은 일정 내내 달고 다녔다.

밝은 미소의 아이들을 뒤로하고 이후 예정된 행사인 친선의 밤 행사를 위해 이동했다. 도착한 곳은 게르가 뻑뻑하게 들어선 숙소 겸 행사장이었다. 친선의 밤 행사에는 다양한 전공을 배우고 있는 몽골 대학생들 및 몽골시 관계자분들과 101번 유치원 원장님이 와주셨다. 우리 대원들은 4개의 테이블에 나누어져 몽골 대학생들과 준비된 공연들을 보며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였지만 공연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대한 대화를 하며 조금 편해졌던 것 같다. 이후 사전에 준비했던 댄스 공연을 한 뒤 한국인 인물 퀴즈, k-pop 노래 제목 맞추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예상외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보람차고 감사했다. 우리는 몽골의 저녁 하늘에 떠 있던 아름다운 별을 보며 설레었던 몽골에서의 첫 날을 마무리했었다.

### Special thanks to..

번외로 이번 여정에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홀로 귀국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몸 상태가 괜찮아진 후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단장님을 비롯한 글로벌 도시 재단 시민 대장정 팀원분들과 부산시, 사마르칸트시 관계자분들, 제가 합류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신 김병관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당시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같이 동행했던 분들의 응원과 걱정, 배려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여 합류할 수 있었다.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여정이었다.



### 한 창 길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4학년



## 13일간 그 빛나는 여정을 뒤로 하고

2023년 9월 3일, 두 분 공동단장이 이끄는 대장정 단원들이 김해공항에 도착하면서 올해 13일 간의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22일, “초원길로, 비단길로, 엑스포 유치로”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역에서 출발한 올해 대장정은 (도시 외교) 부산시-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경제) 경제인 간담회(in 알마티),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협력포럼(in 사마르칸트), (문화)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1주년 기념 음악회&고려인 동포 격려음악회(in 알마티), 부산영화 상영회(in 알마티), 태권무&K-POP 댄스(in 파리), (교육)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현판식(in 사마르칸트), 현지 학생 교류(in 각 도시), (역사) 이태준열사 기념공원 방문 식수(in 울란바타르), (도시브랜드 홍보) 부산 데이(in 파리, 2030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의 성과를 거두었다.



## 구영아

부산시 외교통상과  
신외교팀장

그리고, 그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 사업을 직접 주관한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뿐만 아니라, 시의회, 시출연기관(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대학(동아대, 부산외대), 기업인(전문무역상사협회 등), 지역 기업(금융기관, 언론사 등), 그리고, 선발 경쟁을 뚫고 참가한 청년들이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하나가 되었고, 각 국 현지 대사관(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프랑스)의 지원과 협조를 넘은 적극적인 참여까지 있었다. 이 모두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볼 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대륙탐방정도만 생각되었었는데 막상 대장정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하고 또 직접 참여해 보니, 이 여정이 그저 단순히 탐방을 통한 청년 격려 프로그램이 아니라 민과 관과 학이 그야말로 함께하고 세대마저 아우르는 종합 공공외교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이렇게나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과 협조와 배려가 오롯이 녹아들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새삼 절감했다.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은 올해로 여섯 번째 여정을 마무리했고, 이제 다시 그 일곱 번째 여정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미리 2024년으로 가서 국제정세와 트렌드를 읽고 콘텐츠를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도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의 담당자로서 실무자로서, 올해 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기대되는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으로, 우리 시의 소프트파워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그 날을 기대한다.





윤동환

부산시 외교통상과  
신외교팀 주무관



평소 언론을 통해서만 접했던 유라시아 대장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공식생활을 통틀어 가장 보람 있던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여러 상황 속에서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 그 안에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뛰어주신 두 분의 공동 단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행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신 글로벌도시 재단 담당자들, 힘든 여정 속에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청년 학생들 등 직접 다 언급할 순 없지만 많은 좋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파리의 젊은이들까지 열정적으로 K팝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평소 언론으로만 접하던 한류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국말조차도 잊어버렸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고려인들의 모습에서 크게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88명의 Team Busan

본 사업을 2년 동안 기본계획서를 수립하는 그 시작은 언제나 팀원들과 부산시와 재단이 빛날 수 있을 멋진 아이디어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매번 예산이 부족해서 허우적거렸다.

코로나 19 이후, 반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내기위해 머리를 쥐어뜯는 날의 연속, 그로 인해 나와 팀원들, 부산시 신외교팀장과 주무관은 참 열심히도 고민했다.



### 전미경

부산글로벌도시재단  
팀장

한푼이라도 아끼겠다고 계산기 두드리며 팀원을 보면서 팀장으로 무력감까지 느낄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정식 날은 오고야 말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야하는 날은 왔다. 그렇게 부산-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파리로, 밤을 잊은 채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이동했다.

봄부터 달려서 여름까지 우여곡절과 그 감정들은 극한직업임에 분명하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주위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기관과 단체, 그곳의 사람들 덕분이며, 한 분 한 분 그 고마움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안팎으로 어렵지만 지원하고 협조해주는 많은 분들, 현지의 다이어트식과 하드 스케줄 소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두 단장님과 여러 윗분들 덕분에 13일 간 여정을 잘 마치고 다함께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또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도움을 줄 줄도 알게되고 스스로 더 머물어진 듯도 하다.

출발 전, 각자의 할 일과 바라는 바는 달랐을지 모르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마음을 보태고 역할을 하고 싶었던 바람이 같은 88명 모두가 같은 'Team Busan'이었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88명의 바람, 하나하나가 다 보태어져서 11월28일 BIE 파리 총회에서 "BUSAN"이 우렁차게 외쳐지기를 바란다.





## 우당탕탕 유라시아 Dynamic 대장정

Gateway to Eurasia로 가기 위한 여정이자 부산시 대표 공공외교 프로젝트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올해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언제나 그러했듯 올해 유라시아 대장정도 다이나믹 그 자체였다.



손희승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선임

연초부터 대장정 출발 전까지 루트 선정, 사전답사, 도시별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참가자 선발 및 교육, 행사준비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끊임없는 연락업무, 운영진 회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

출발 4일 전에 갑자기 몽골 울란바토르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비행기 출발시간이 12시간 늦춰지고, 출정식 당일 전세버스의 캐리어 배달사고, 우즈벡 국경 이동 시 세관원으로부터 드론 압수, 대장정 대원 환자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대장정만 시작되면 불운이 겹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년 일어나는 전통(?)이지만 그러한 불운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대장정의 결과는 언제나 해피엔딩인 것 또한 이 행사의 전통이다.

몽골 이태준 열사 추모행사, 몽골 유치원 방문교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알마티 전통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 알마티 고려인 뿌리센터 방문, 알마티 부산영화 상영회, 부산-중앙아시아 경제포럼, 우즈벡 제2도시 사마르칸트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프랑스 파리 부산데이 야외행사 및 리셉션, 유네스코 본부 견학 등 올해 대장정 프로그램은 작년보다 행사의 규모와 콘텐츠가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방문국가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지 부산을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부산문화회관(시립국악단), 부산경제진흥원, 영화의전당,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부산외국어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지역 내 주요 기관과 대학들이 본 행사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 속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밤낮없이 고생한 부산시와 재단 운영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셀프박수를 보내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준비시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랑스런 7명의 청년대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싶다.





김 권 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 리



##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서 배운 문화교류의 의미

몽골 울란바타르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를 거쳐 프랑스 파리를 마지막으로 11박 13일간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산시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로 모인 구성원들이 한뜻으로 여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한마음으로 똘친 대장정 단원들과 부산시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 준 각 도시별 시민들까지, 모든 이들이 '부산'이라는 키워드 아래 모여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했던 2주 간의 여정은 내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기간 동안 부산시를 알리고 더 나아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도시별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했다.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진심으로 교류 행사를 즐겨주었던 현지 시민들과 돌발 상황에서도 책임감 있게 본인들의 역할을 발휘해 준 단원들 덕분에 대장정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문화로 하나 된 그들을 바라보며, 대장정이 언어와 문화 차이를 넘어 누구나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만남이 모인다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생겼다.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파리 부산데이는 다시 한 번 문화교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행사였다. 굶은 날씨로 인해 야외 부스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정 단원들은 각자가 맡은 바를 다해주었다. 이에 부응하듯 파리 시민들도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 체험을 즐기며 2030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지고 응원해 주었다. 부산시와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파리 시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던 단원들의 모습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다.

대장정 준비 기간부터 귀국 후까지 예상치 못 한 순간에서도 늘 배움이 있었다. 부산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대장정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각 도시에서 만나 소통했던 현지 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여정을 통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단순히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만을 위한 행사가 아닌 타 문화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배움의 장과 같다고 느꼈다. 더불어 우리 문화에 호응해 준 각국 현지 시민들과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대장정 단원들과 고군분투했던 11박 13일간의 여정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했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엑스포 유치로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김병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리

### 새옹지마(塞翁之馬), Y 빼고 A to Z 완주!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해당 국가와 특정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들 수 있어서 큰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단장이신 의원님 두 분께서 포용해주시는 리더십으로 단장님 스케줄과 전체 스케줄을 모두 잘 소화해주셨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생 참가자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지만, 항상 그렇듯 현장에 도착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한인회, 카자흐스탄 유관기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1 세종학당, 부산시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사마르칸트 시청, 프랑스 한국문화원, 유네스코 대표부 등의 협조로 자칫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상황을 모두 슬수수범해서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친 것 같다.

특히 대학생 참가자 분들의 센스와 재능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 같다. 모두와 함께 한 11박 13일의 추억은 오래동안 생각날 것 같다. Adios Amigos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의를 석 달가량 앞둔 중요한 시점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원들이 여정을 시작했다. “한 명 한 명이 외교관이 됐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당부를 받고 출발한 대장정이어서인지 대원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취재진으로 동행하는 마음도 괜스레 무거웠다.



탁경륜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옆에서 지켜본 대장정 대원들의 일상 은 녹록지 않았다. 교류 행사, 각종 공연, 만찬 등 빼곡한 일정 뒤에는 이동이라는 또 다른 일정이 뒤따랐다. 짧은 기간에 여러 도시를 방문해야 하다 보니 제대로 숨 돌릴 틈조차 없어 보였지만 대원들의 표정은 항상 밝았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순간에도 다음 일정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끝까지 함께 일정에 참가하기 위해 의지를 다졌던 대원, 그런 대원을 챙기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숨은 노력이 이번 여정을 빛냈다고 평가한다.

이번 여정에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희망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방문지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묻어났고 부산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말은 우리나라의 높은 인지도를 실감하게 했다.

프랑스에서 봤던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프랑스 현지 댄스팀이 KPOP 노래를 틀어놓고 즐겁게 춤추던 장면이다. 댄스 대회가 일찌감치 끝났고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음악에 심취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다.

시작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엑스포 유치가 어느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아직 경쟁국과의 치열한 대결이 남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게 중론이다. 개최국의 의지가 핵심 평가요소다보니 부산시뿐 아니라 정부까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해 달라”고 나서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부산의 의지를 잘 보여준 행사라고 생각한다. 딱딱한 공식행사 위주의 일정이 아니라 해외 대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눈높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행사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손조롭게 시민대장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시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라는 염원의 말이 유라시아에 울려 퍼진 2023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몽골에서부터 파리까지의 여정에는 모두의 열정과 염원이 함께 했다. 매일 1~2건의 행사를 각 나라에서 진행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았던 나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대장정 대원들은 누구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항상 행사에 임하며 열정을 쏟아부으며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 마음이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도 잘 전해졌던 건지 모든 행사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산 홍보 PT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부산에 대해 홍보하는 대원들,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외국인들. 그 모습은 너무나 서로 즐거워 보였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카메라 셔터를 계속 누를 수밖에 없었다. 또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등이 진행된 레크레이션 파트도 좋았다고 생각한다.



김보경

부산일보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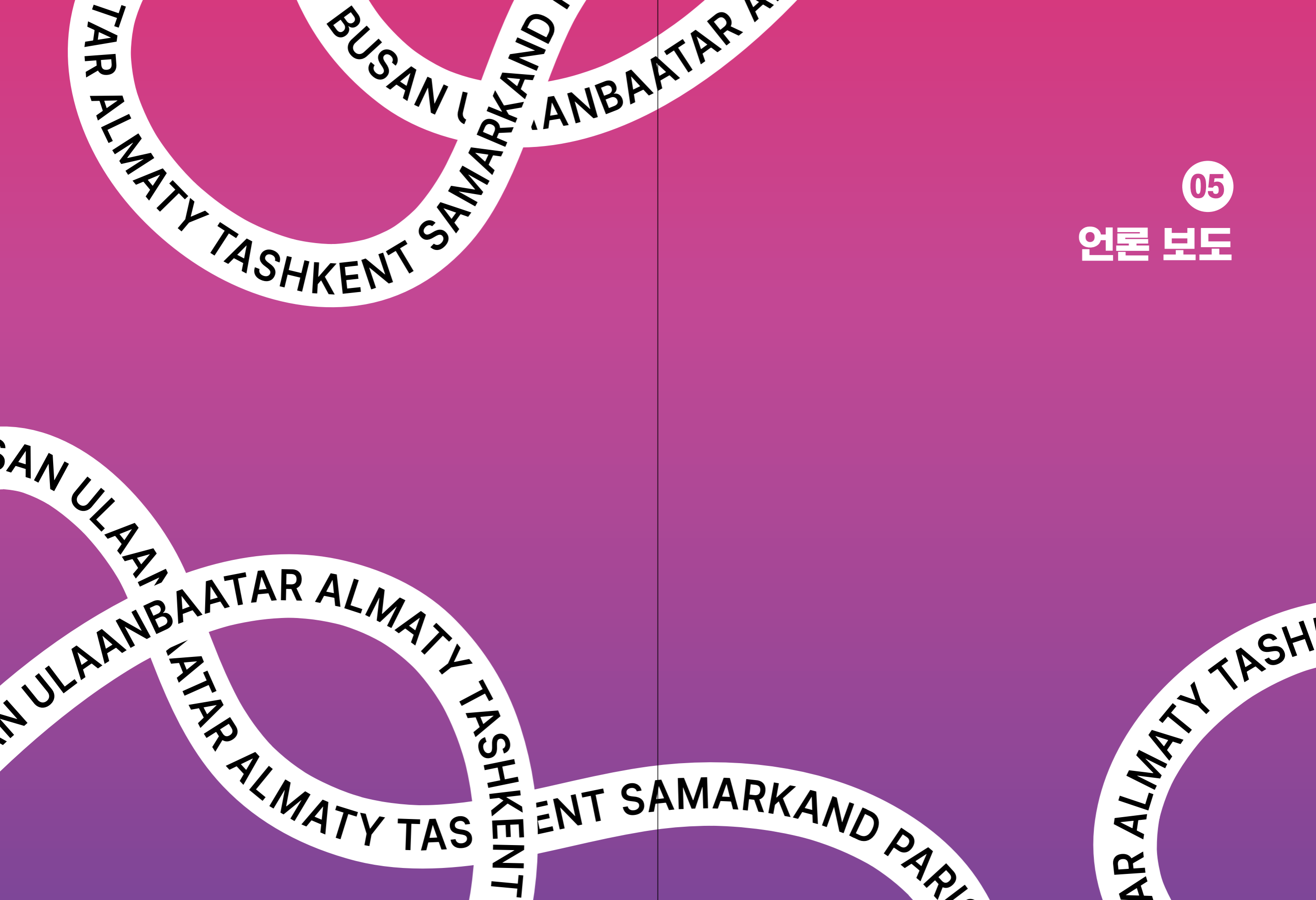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행사는 101번 유치원 교류행사, 고려인음악회, 파리데이이다. 몽골에서 진행된 101번 유치원 교류행사 초반에는 유치원생들의 경계심이 높아 행사가 잘 진행될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대원들의 진심이 느껴졌던건지 행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마지막엔 태극기 바람개비를 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다함께 하는 대원들과 아이들을 영상에 담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이게 바로 나이, 문화, 나라를 넘어선 교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우즈베크에서 진행된 고려인 음악회는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부산과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음악회가 클라이막스에 다다를 때 짙은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는 외국인들을 카메라를 통해 보면서 나도 모르게 몽클함을 느꼈던 것 같다.

유라시아 대장정의 마지막 종착지 파리에서 진행된 파리데이 행사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즐긴 외국인들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부산을 좋아하며,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파리 현지에서 보면서 한국 문화의 힘을 느낌과 동시에 한국과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위의 행사들 외에도 다양한 문화교류행사, 협약식등이 있었고 그 행사들 또한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2030엑스포 유치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라는 행사는 수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뜻깊었던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타국의 시민들을 만나 손과 발로 뛰어다니는 행사였기에 좀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대장정에서 촬영을 맡으면서 그 염원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대장정 중 가장 많이 담아냈던 한마디를 적으며 글을 끝마치겠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 2023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언론보도 현황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 제목
1	국제뉴스	2023.08.22.	김옥빈	'2030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출정식 갖고 13일간 대장정 돌입
2	국제신문	2023.08.22.	김현주	부산서 중앙아시아 거쳐 파리까지...엑스포 염원 안은 13일간 대장정
3	부산일보	2023.08.22.	손혜림	엑스포 꿈 안고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4	부산일보	2023.08.22.	김종진	[포토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5	파이낸셜뉴스	2023.08.22.	노동균	부산서 파리까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
6	부산일보	2023.08.22.	변현철	코레일 등, 부산역서 '2023유라시아시민대장정 출정식'
7	국제뉴스	2023.08.22.	김옥빈	"부산역에서 파리까지"...'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식
8	국민일보	2023.08.22.	윤일선	"엑스포 유치 열기 전한다"...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9	부산제일경제	2023.08.22.	최진원	부산시, 2030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개최
10	아이뉴스24	2023.08.22.	정예진	부산서 파리까지...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
11	대한경제	2023.08.22.	김영대	부산시,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식 개최
12	내일신문	2023.08.22.	곽재우	부산엑스포 시민대장정 돌입
13	중도일보	2023.08.22.	김성욱	부산시,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22일 출정식
14	파이낸셜뉴스	2023.08.22.	노동균	부산에서 파리까지...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
15	뉴시스	2023.08.22.	김민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서 24~25일 '부산 국악 공연'
16	뉴시스	2023.08.22.	백재현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식... 22일 오후 부산역 대합실
17	뉴스프리존	2023.08.22.	김희경	부산시, 부산역 대합실서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식
18	연합뉴스	2023.08.22.	민영규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2030부산엑스포 홍보
19	아시아경제	2023.08.22.	이동국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출정식 개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응원
20	뉴스1	2023.08.22.	손연우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22일부터 13일간 몽골 등 방문
21	뉴스핌	2023.08.22.	남동현	부산시, 203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울란바타르 등 5개 도시 방문
22	서울경제	2023.08.22.	조원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발... 13일간 울란바타르 등 5개도시 방문
23	부산MBC	2023.08.22.		2023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24	경남도민신문	2023.08.23.	최원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유라시아시민대장정'출정
25	철도경제신문	2023.08.23.	장병극	부산역서 '2030 유라시아시민대장정'출정식 열어
26	뉴스프리존	2023.08.29.	김희경	부산시-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
27	일요신문	2023.08.29.	박정현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외
28	메트로신문	2023.08.29.	김영찬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29	부산제일경제	2023.08.29.	최진원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30	경남신문	2023.08.29.	박진우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1	이뉴스투데이	2023.08.29.	김재현	부산시,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2	아시아경제	2023.08.29.	이동국	부산시-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33	파이낸셜뉴스	2023.08.29.	노동균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34	UPI뉴스	2023.08.29.	최재호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경제교류 첫 물꼬
35	국제신문	2023.08.29.	김현주	부산시-사마르칸트시 우호도시 협정... 중앙아시아와 협력 강화
36	뉴스핌	2023.08.29.	남동현	부산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37	파이낸셜뉴스	2023.08.30.	노동균	유라시아 대장정 총착지는 佛... 전세계에 부산 엑스포 알린다
38	부산일보	2023.08.30.	강병균	[밀물썰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39	아시아투데이	2023.08.30.	조영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알린다
40	머니투데이	2023.08.30.	노수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부산데이 인 파리' 개최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 제목
41	세계일보	2023.08.30.	오성택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서 부산의 매력 알린다
42	부산제일경제	2023.08.30.	최진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 현지서 부산 매력 알린다
43	전국매일신문	2023.08.30.	이체열	부산시, BIE 도시 프랑스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린다
44	LG헬로비전	2023.08.30.	차선영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 파리서 부산 알리기 나선다
45	쿠기뉴스	2023.08.30.	최은희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전, 파리서 '피날레' 찍는다
46	문화일보	2023.08.30.	김기현	부산 유라시아 대장정, 파리서 '엑스포' 홍보로 대미 장식
47	아이뉴스	2023.08.30.	정예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 파리서 부산 매력 알린다
48	프레시안	2023.08.30.	박호경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 파리 현지서 부산 매력 알린다
49	국민일보	2023.08.30.	윤일선	파리서 31일 '부산데이'... "엑스포 유치 염원 전한다"
50	메트로신문	2023.08.30.	김영찬	부산시-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 현지에서 부산 매력 알린다
51	경향신문	2023.08.30.	권기정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 현지에서 부산의 매력 알린다
52	데일리한국	2023.08.30.	양준모	부산시, 파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체험 부스 운영
53	뉴시스	2023.08.30.	원동화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2030부산엑스포 문화 홍보로 마무리
54	파이낸셜뉴스	2023.08.30.	노동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서 부산의 매력 알린다
55	노컷뉴스	2023.08.30.	박종석	'엑스포 유치 염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서 피날레
56	연합뉴스	2023.08.30.	민영규	파리서 31일 '부산데이'... 2030부산엑스포 홍보
57	국제신문	2023.08.30.	김현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서 부산 알린다
58	뉴스핌	2023.08.30.	남동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59	뉴스1	2023.08.30.	손연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프랑스 파리서 2030엑스포 유치 홍보
60	아시아경제	2023.08.30.	이동국	파리 현지서 부산 매력 알린다!... '부산데이 in 파리' 개최
61	부산MBC	2023.08.30.		프랑스 파리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행사 개최
62	연합뉴스	2023.08.31.	송진원	"부산 파이팅!"... 엑스포 개최지 결정할 파리서 부산 홍보 행사
63	경남신문	2023.08.31.	박진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서 부산 매력 전파
64	서울신문	2023.08.31.	정철욱	"엑스포는 부산 아임교" 파리 녹인다
65	국민일보	2023.08.31.	윤일선	오늘 파리에서 '부산데이'... 엑스포 유치 염원 전한다
66	세계일보	2023.08.31.	오성택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서 엑스포 유치전 총력
67	이뉴스투데이	2023.09.01.	박홍식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68	뉴스핌	2023.09.01.	남동현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올인
69	CNB뉴스	2023.09.01.	임재희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70	국제뉴스	2023.09.02.	김옥빈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71	부산일보	2023.09.03.	탁경륜	프랑스에 전달된 엑스포 유치 염원... "Busan Is Ready"
72	메트로신문	2023.09.03.	김영찬	부산시 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박람회 유치 홍보 및 우호 협력 강화
73	부산일보	2023.09.03.	탁경륜	부산 엑스포 알리는 태권도 격파 체험에 파리 시민 장사진
74	부산제일경제	2023.09.04.	강진권	부산시의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공적 임무 수행
75	파이낸셜뉴스	2023.09.04.	노주섭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76	대한경제	2023.09.04.	김옥찬	부산 동아대 이해우 총장·신정택 총동문회장·태권도 시범단, 파리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 펼쳐
77	베리타스알파	2023.09.04.	정우식	동아대 이해우 총장·신정택 총동문회장·태권도 시범단, 파리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 펼쳐
78	파이낸셜뉴스	2023.09.04.	노주섭	동아대 태권도 시범단, 파리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79	교수신문	2023.09.04.	배지우	동아대 이해우 총장·신정택 총동문회장·태권도 시범단, 파리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활동 펼쳐

# 연도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추진 현황



### 사업명 현황

- 2016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 2017 유라시아 부산원정대
-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 2019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2020 유라시아 시민대장정(가보까 외교단 파견)
- 2021 비대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추진 목적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브랜드 홍보 및 신북방 지역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와 새로운 도시외교 기반을 구축 하고, 시민참여형 공공외교 성과 창출에 기여

### 주요 내용

- 2016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러시아 횡단**
- 2017 해상·육상 복합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중국, 몽골 개척**
- 2018 유라시아 물류루트 탐사 및 거점도시별 교류행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개척**
- 2019 통일시대 대비 유라시아 철도물류 및 북방지역 협력 행사 **바르샤바, 베를린 개척**
- 2020 시민공모를 통한 부산시 신북방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아이디어 기획 및 수행, 점도시 행사 추진 (신북방 대상 14개 국가 확대) ※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 2021 온라인 유라시아 K-POP 댄스 경연대회, 부산-상트 자매도시 비대면 음악교류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2022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도시별 외교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 청년 교류행사 등

### 추진 경로

2016	부산항(해양대 한나라호)-블라디보스톡(TSR)-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노보시비르스크-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항공)-부산	18박 19일
2017	부산항(해양대 한나라호)-블라디보스톡(육로)-연길-백두산-장춘(열차)-베이징(TMGR)-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TSR)-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SAPSAN)-상트페테르부르크(항공)-부산	20박 21일
2018	부산(항공)-블라디보스톡(육로)-훈춘-백두산-장춘(열차)-베이징-우루무치-호르고스(육로)-알마티(열차)-아스타나-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항공)-부산	21박 22일
2019	부산(항공)-블라디보스톡(육로)-우수리스크-하얼빈-베이징(99TMGR)-울란바토르-이르쿠츠크(TSR)-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바르샤바-베를린(항공)-부산	24박 25일
2020	신북방 대상 14개 국가 ※ <b>코로나 19로 사업 취소</b>	-
2021	비대면	-
2022	부산(열차)-광명-인천공항(항공)-알마티(육로)-비슈케크(항공)-타슈켄트(항공)-파리(항공)-부산	13박 15일

### 주요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국가/도시	1개국, 7개 도시	3개국, 10개 도시	3개국, 11개 도시	5개국, 10개 도시	3개국, 3개 도시	5개국, 5개 도시
규모 대원, 협력기관 파견인원 포함	130명 대원 55명	177명 대원 56명	107명 대원 55명	104명 대원 56명	-	55명 대학생 9, 시의원, 경제인, 운영진 및 공연단 등 46명
행사 수	15개	19개	21개	24개	3개	14개
언론보도	국내 125건 국외 39건	국내 156건 국외 26건	국내 147건 국외 72건	국내 87건 국외 24건	부산 MBC 방영 (항구의 랩소디)	국내 80건
후원/협찬	1개 825천원	7개 19,125천원	5개 16,440천원	5개 20,043천원	-	-
총 집행액	448,000천원 -시보조금 300,000천원 -참가비 108,000천원 -재단 40,000천원	492,500천원 -시보조금 350,000천원 -참가비 112,500천원 -재단 20,000천원	535,000천원 -시보조금 400,000천원 -참가비 115,000천원 -재단 20,000천원	570,779,430원 -시보조금 419,420,053원 -재단 19,619,569원 -참가비 131,739,808원	14,608,449원 -시보조금 135,391,551원 -재단 13,331,203원	306,581,902원 -시보조금 225,305,882원 -재단 9,934,480원 -법시민주치위 60,000,000원 -신외교팀 11,341,540원
사업비	448,000천원 -시보조금 300,000천원 -참가비 108,000천원 -재단 40,000천원	492,500천원 -시보조금 350,000천원 -참가비 112,500천원 -재단 20,000천원	535,000천원 -시보조금 400,000천원 -참가비 115,000천원 -재단 20,000천원	570,000천원 -시보조금 420,000천원 -참가비 130,000천원 -재단 20,000천원	150,000천원 -시보조금 140,000천원 -재단 10,000천원	312,000천원 -시보조금 230,000천원 -재단 10,000천원 -법시민주치위 60,000천원 -신외교팀 12,000천원
의원참석 단장자격	권오성 새누리당	이상민 자유한국당 ※공동단장	6.13 지방선거로 인한 불참	도용희 더불어 민주당	-	안성민 국민의힘, 단장, 시의원 박희용 국민의힘, 부단장 *시의장/행정문화 위원회
비고	-시장 : 출정식, 부산 데이(상트) -경제부시장 : 블라 디 환영 행사 등	-경제부시장 : 출정식 -시장 : 블라디보스 토크 환영 및 부산 데이, 갈라콘서트 등	-경제부시장 : 출정식 -행정부시장 : 상트 부산데이, 갈라콘서 트 등	-시장 : 출정식 -기획조정실장 : 폴란 드, 베를린 친선음악 회 행사	비대면 행사	-시장 : 출정식 -경제부시장 : 알마티 우호협력체결식 등





### 설립개요

- 설립연도** 2005. 11. 25. (개소 2006. 2. 28.)
- 설립근거**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설립목적** 국제교류 업무 및 영어방송업무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추진 도모

### 주요사업

- ▶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 ▶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 사업
- ▶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 ▶ 영어 등 다국어방송을 통한 정보·지식의 제공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운용
- ▶ 방송광고의 편성·조정
- ▶ 해외 방송사와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
-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주요연혁

- 2006.02 부산국제교류재단 개소
- 2009.03 1577-7716 외국인콜센터 개소
- 2011.03 부산글로벌센터 개소 및 사무처 이전
- 2013.05 부산국제교류재단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 2016.05 부산국제교류재단 대통령상 수상
- 2019.12 부산시외국인유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2021.04 국가재난관리기여(코로나19 방역)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2021.10 '2021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2021.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상(아이키우기 좋은기업상) 수상
- 2021.12 '주민참여 디지털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2023.07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과 통폐합으로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2023.07.01.부) 출범

### 주요시설

- 부산글로벌센터(국제교류본부)**
  - 위 치**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 부산회관 13층
  - 시설현황** 대표이사실, 사무처, 강의실, 회의실, 교류라운지 등
- 연주소(영어방송본부)**
  - 위 치**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401호
  - 시설현황** 사무처, 회의실, 응접실, 주조정실, 스튜디오, 편집실 등
- 송신소** (주) 황령산 송신소 / (보조) 기장, 녹산, 정관 방송보조국
- 송신시설** 송신탑 안테나, 송신설비

# BGCF status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현황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

**조직** 1실 2본부 7팀 1센터





Busan is good for  
**EXPO 2030**

**2023. 8. 26토 - 8. 27 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월드엑스포유치로!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광역시 (재)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Busan Global City Foundation



## 2023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발행 황기식  
편집 유라시아협력센터  
편집제작 홍성디자인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대표전화 051) 711-6878  
팩스 051) 711-6826  
홈페이지 www.eurasiacenter.kr  
이메일 busan.eurasia@gmail.com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로!  
**BUSAN IS READY!**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초원길로! 비단길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로!  
**BUSAN IS READY!**